

# 부천시박물관으로의 통합과 운영에 관한 시론(時論)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박 종 민 (부천시 박물관 학예실장)







# 부천시박물관으로의 통합과 운영에 관한 시론(時論)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박종민 (부천시 박물관 학예실장)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1.

---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 부천시박물관 현황과 건립 과정
- 부천시박물관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난제들
- 부천시 박물관으로의 통합 후 운영 계획
- 과제를 남기며...

## 저자 소개

박 종 민

- 부천시 박물관 학예실장



## 부천시박물관으로의 통합과 운영에 관한 시론(時)

### 1. 머리말

민선 3기 원혜영 부천시장은 “다양한 박물관 건립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를 외부인들이 관광하기 위해 쉽게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테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2001년 신년사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서 “에디슨과학박물관을 보다 규모 있게 확장해 나가고 자연사생태박물관의 기능을 확대하며 짚풀생활사박물관을 건립,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박물관도시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펄벅기념관 건립과 음악 전용 연주홀 및 전시관건립을 추진하고 …” 부천시 박물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리는 부천시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부천시가 박물관정책을 시장 주도하에 시 역점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다양한 박물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문화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로부터 세월이 꽤 흐른 지금, 박물관정책은 지역사회 여건이 변화하는 속에 부천시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천시 박물관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부천시는 9개의 등록 박물관과 2개의 미등록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sup>1)</sup>,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다수의 학예사를 채용하고 있는 시로 평가받고 있다.<sup>2)</sup> 그중 교

1) 등록박물관으로 부천교육박물관(제289호), 유럽자기박물관(제285호), 부천수석박물관(제05 박06호), 부천활박물관(제07 박10호), 펄벅기념관(제08 박04호), 부천옹기박물관(제11 박10호), 부천로보파크(제06 박05호), 한국만화박물관(제06 박06호), 자연생태박물관이, 미등록박물관으로 물박물관과 부천향토사료관이다.

육과 유럽자기, 수석, 활, 펄벅, 옹기박물관 6관이 부천시 박물관으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로부터 6관을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부천시의 주요 박물관정책 중 하나가 6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펄벅, 옹기)을 부천시박물관으로 통합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6관을 부천시박물관으로의 통합하려는 정책은 부천시에서 수년 전부터 거론해 왔다.

부천시는 현재 박물관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부천시박물관증축이전건립용역결과」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증축 이전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에 대한 지역 내 다양한 요구와 바람, 최근 박물관 운영 정책을 살피면서 부천시박물관 통합과 운영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부천시 박물관 현황과 건립 과정

민선3기 부천시장 선거에 나선 원혜영 후보는 ‘공원이 많은 도시, 주차장이 많은 도시, 박물관이 많은 도시’라는 목표하에 영화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공약하였다. 그는 일류 도시가 조건으로 공원과 주차장,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그 예를 꼽으면서, 박물관 관련 정책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물관 정책은 부천시가 ‘일류도시 부천건설’로 가는 필수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숙명과 같은 숙제였다. 그는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부천 지역 모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거듭 밝힘으로써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부천시 박물관은 <박물관이 많은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부천시가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정부분 순기능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정책은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온갖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의 6개 전문테마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부천시립박물관’과 같은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6개 분야의 박물관 하나하나를 묶은 집합적인 박물관을 의미한다. 부천시 박물관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6개 분야는 교육과 유럽자기, 수석, 활, 펄벅, 옹기이다. 이들 박물관은 해당 분야 유물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면모를 갖추고 있다.

- 2) 학예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주시(19명)로 전국 평균 1,47명이다. 부천시 박물관은 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만 6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지역문화지표분석결과」보도자료, 2014.2.6.)

6관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부천시는 상동과 작동 등 여러 곳을 박물관과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시의 정책은 부천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운동장 내 박물관이 조화롭지 못해서 너무 어색해 보이지만, 개관 당시만 해도 종합운동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박물관 건립은 매우 이색적이고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따라서 몇몇 도시는 관계자들을 파견해서 부천시 박물관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였다. 운동장이라는 번잡한 주변 환경과 독립적이지 않은 부속 시설물로 인식되기 십상이지만, 부천시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부천시민에게 심어준 것은 사실이다.

부천시 박물관은 기증과 인수, 신규 설립을 통해서 개관하였다. 기증은 소장자로부터 자료를 수증하여서 건립된 박물관으로 교육(민경남)과 유럽자기(복전영자), 수석(정철환), 활박물관(김기홍)이 그 예이다. 인수는 기존에 운영되던 박물관을 인수해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펄벅기념관을 예로 들 수 있다. 신규 설립은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서 기획에서 건축, 전시 등 개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진행한 방식으로 옹기박물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부천옹기박물관은 옹기박물관과 옹기생산체험장 등을 갖춘 옹기민속마을을 조성할 계획에서 출발하였다. 부천시는 점마을 일원의 옹기가마 및 토굴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구역을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시는 1999년 11월 옹기민속박물관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2000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적정)를, 2002년 부천시 옹기민속마을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검토서 작성을, 200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어서 2011년 12월에 완공 개관하였다.

부천시 박물관은 부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1종전문 등록박물관으로 공공의 문화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천시는 박물관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수도권 문화도시로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가일층 높이고자 한다.

### 표1. 박물관 운영 현황

박물관	운영 형태	개관/등록	인력 (명)	규모 (㎡)	소장품 (점)	건립기간 (백년)	비 고
교육	부천문화 재단부탁운영	2003.04.29 2003.11.21	3	672	4,712	481	유물증 민경남
유럽 자기	”	2003.05.26 2003.10.08	3	528	904	595	유물증 복전영자
수석	”	2004.10.16 2005.11.09	4	642	2,215	310	유물증 정철환

활	”	2004.12.14 2007.05.31	2	811	468	642	유물증 김기흥
팔백	”	2006.09.30 2008.03.28	2	373	232	3,200	
옹기	”	2011.12.15 2011.12.07	6	2,130	778	8,792	

지금의 부천시 박물관이 자리를 잡기까지 부천시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박물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로 자리를 잡고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정책의 뼈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은 그 내용을 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부천시는 박물관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였다. 부천시 박물관은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종합테마공원으로 개발’의 일환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물관은 자전거(41평) 및 광물·보석(89평 800여 점), 수석(184평 1천여 점), 책(195평 근대 및 일제시대 60~70년대 교과서 5천 권과 학습교구 500점)을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sup>

이어서 부천시는 2021년까지 부천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색 있는 테마관 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을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세웠다. 이 계획은 박물관 유치와 건립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박물관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원미구 도당동 및 춘의동 일원은 자연역사문화권으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선사유적박물관(고강동), 부천향토역사관(도당동), 옹기박물관(여월동), 물박물관(성곡동), 자연생태 박물관 및 농경유물전시관(춘의동) 등 7개 정도의 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원미구 춘의동과 상동 근린공원 일원은 문화·예술·레포츠 중심권으로 17여 개소의 박물관을 건립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춘의동 지역은 자전거박물관, 교육박물관, 광물보석 박물관, 수석박물관, 민속놀이체험관, 활박물관, 교통박물관, 만화박물관을, 상동근린공원에 경기도립박물관, 김치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화석박물관, 모형박물관, 에디슨 과학박물관, 국가상징박물관, 조리박물관, 안전보건박물관, 영화박물관 등을 건립할 것을 구체화했다,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은 교육과 연구중심권으로 펄벅기념관과 공업사 박물관을 조성하거나 유치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박물관만 무려 36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뢰할만한 것이었다.

이후에 사업을 변경해서 (주)제일기획은 부천 상동 프로젝트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3) 이 사업은 바이킹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들어서는 ‘WONDER ZONE’을 비롯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자전거나, 골프연습장, 광물 및 수석 등 각종 박물관 등 종합놀이시설을 계획하였다.

발표문은 상동 유원지 개발비는 5,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박물관 건립비용으로 1,33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 구상에 따라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려진 박물관 그림은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이었다. 그 안(案)은 박물관 컨셉을 오감 만족에 맞춰 시(視), 청(聽), 촉(觸), 후(嗅), 감(感)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자인 기본방향은 자연과 인공, 선조와 후손, 민족과 민족, 전시물과 관람객, 옥내외 공간까지 무한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상하는 안이었다. 시는 짚풀생활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원하고, 전문가는 박물관을 만들며, 박물관은 부천 어린이가 소유하는 생활박물관으로 키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부천시는 (주)다모와 상동택지개발지구 유원지 부지 내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모는 이 사업을 현실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 유명건축박물관사업 및 운영방향, 시설관리방법,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비교 견학하였고, 특히 예정 건축물 4점을 부천시청 현관에 사전에 전시하는 열정을 보였다.<sup>4)</sup>

이어서 부천시는 2003년 오정구 고강본동에 한강유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선사유적테마파크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는 고강본동 일원 300여 평에 지상 1층 규모로 시비 25억여 원을 투입 200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에 시는 고강선사유적박물관 컨셉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부천시는 오정구 여월동과 작동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옹기민속마을조성계획’에 이어서 옹기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지역 내에 ‘점말’이라는 마을에서 옹기를 구웠던 가마가 있어서 부천시는 옹기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천시는 또 하나의 박물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시는 오정구 대장동 굴포하수처리장 관리본관 1층에 133평 규모로 약200여점의 모형연출을 갖춘 하수과학 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5)</sup>

부천시는 2002년을 「첨단산업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부천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한 해로 문화정책을 야심차게 설계하였다. 시는 차별화와 특성화된

- 
- 4) (주)다모와 미국의 Wonder Works사에서 제작하여 전시한 작품은 러시아의 성 바실리 대성당(1555-1560)과 스페인의 성 가족 성당(1884-), 이집트의 스피크스(BC 2680년경),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하우스(1875년) 등 4점이다.
- 5) 하수과학박물관은 사업비 17억(영여금 7억2천, 도비 3억2천, 시비 3억2천, 인천시 3억4천)을 투입 오는 6월에 착공해 12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린 물을 다시 정화하여 자연을 보존하고 물을 아껴서 쓰는 마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창출과 5대 문화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박물관이 많은 도시화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심장부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서도 번번이 장애에 부딪혔다.

첫 번째 장애는 부천시 기존 박물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과 신규 박물관 건립 취소이다. 에디슨박물관은 원미구 중동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천을 떠나서 강원도로 이전해 갔다. 부천시가 박물관 운영을 지원해 왔음에도 에디슨박물관은 협약서 상 전시 기간이 2000년 10월~2002년 10월까지 마치고, 2004년 10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 사정으로 2003년 4월까지 전시하고 강원도 강릉으로 옮겨 갔다. 결국 부천시는 기존의 에디슨박물관 자리에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서 부천시는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취소한다. 이유는 전시물 기증 예정자가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여러 가치를 부천시에 요구하다가 상호의견이 맞지 않아서 취소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은 2000년 기본계획 수립, 2001년 Dream Straw 부천 짚풀생활사박물관 컨셉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까지 발행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다. 2002년에 관장은 고령과 박물관 운영예산 삭감,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부천시에서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을 포기하였다. 부천시는 2007년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을 논의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하였지만 끝내 개관하지 못하였다.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은 박물관(1, 2, 3관)과 전통주거체험실, 생활관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두 번째 장애로 부천시가 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의회는 시의 박물관 관련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의회는 박물관 건립과 운영보조금, 소장유물 정리 등 박물관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6)</sup> 이후에도 부천시 의회 행복복지위원회는 박물관 관련 사업 재검토와 주요 정책의 시 독주 등을 들어서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기도 했다.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sup>7)</sup> 이외에도 상동유원지 부지 17,000여 평에 신축될 세계유명건축물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내에 형성되어 있어서

- 
- 6) 시는 박물관 관련 예산으로 짚풀생활사박물관 설치준비단 운영보조금으로 2,100만원과 소장유물 자료정비 명목으로 2,000만원, 에디슨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00만원, 펄벅기념관 건립 자료정리 용역 3,000만원, 부천활박물관 설치 컨셉 용역비 1,000만원,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다.(부천신문 465호 2001. 11. 29. 보도)
- 7) 주요 삭감 예산은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비 4억 8,100만원, 펄벅기념관 건립 자료정비 용역비 3,000만원, 부천활박물관 설치 컨셉 용역비 1,000만원,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 6억여원,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2억원 등이었다.(부천신문 467호 2001. 12. 13. 보도, 동신문 468호 동년 동월 20일 보도)

의회 시정 질문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논란거리였다.

신도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였다. 시는 정책에 대한 열정에 비해 일관된 전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과 의회는 시의 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문화사업을 여타 축제마냥 일회성 이벤트로 시행하거나 박물관건립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의 자기만의 충분한 전략을 갖지 못하였다. 박물관이 많은 도시의 문화정책은 실적주의 문화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역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부천시의 박물관 건립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부천에는 2003년 4월 29일 부천교육박물관, 같은 해 5월 26일 유럽자기박물관이 연속해서 개관하였다. 두 개의 박물관 개관은 지금의 부천시 박물관을 형성하는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였다. 부천교육박물관은 672㎡ 규모로 전시실을 (현)민경남 관장이 평생 수집한 교육 관계 자료 4,000여 점을 다양하게 전시해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꾸몄다. 박물관은 학교단위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박물관교실 수업과 관련 프로그램, 특별전시, 학술세미나 개최 등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럽자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복견영자(福田英子) 여사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도자기를 토대로 평생동안 수집한 서양자기 800여점을 부천시에 기증하였다. 전시실은 꽃병, 식기류, 액자, 각종 조각장식품, 크리스탈 및 유리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유럽자기들을 나라 별, 종류 별로 구분해서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물을 보면서, 유럽자기의 흐름과 기원을 이해할 수 있고, 각 나라 별 자기의 특성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기존의 박물관에 대한 비판적인 지역 여론은 교육과 유럽자기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호의적으로 반전한 듯하다. 지난 날 문화의 불모지로 불리었던 부천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자리를 매김 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이유는 전문테마박물관이 하나 둘씩 개관되면서 부천이 '박물관 최다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한국만화박물관을 비롯하여 자연생태박물관,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물박물관 등이 이미 개관하였다. 이후에 수석, 활, 펄벅, 옹기박물관 이어서 개관하였다.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그동안 음악, 영화, 만화로 대표되는 문화도시 이미지에 일대 혁신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여론으로 보인다.

### 3. 부천시 박물관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난제들

“국고만 2천억원 넘게 지원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세금이 출출 샌다.”,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등은 최근 두 개의 모 TV방송이 공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이다. 이 문구들은 공립박물관 종사자에게 낮이 너무 뜨거운 내용이며, 공립박물관에 대한 혹평이었다. 당시 부천시 박물관 역시 박물관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공립박물관은 이 언론보도 사실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립박물관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공립박물관과 부천시 박물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은 2008년에 「테마박물관건립운영실태」와 2013년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필자는 부천시 박물관에 앞서 우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경비 등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르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을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노출시켰다. 일부 지자체 공립박물관은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않은 검토와 잦은 부지 변경, 접근성 부족으로 소수의 관람객 방문, 민원 초래, 유물구입 부적정,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국가에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공립박물관 운영명세’를 제시하면서 박물관이 총수입액이 총지출액을 크게 밑도는 등 운영수지 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박물관의 관리부실화(재원부족⇒전시물품 및 전문인력 미확보⇒관람객 감소⇒운영수지악화)로 이어져 운영의 악순환으로 작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부실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박물관 확충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공립박물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와 나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용과 선심성 사업으로 타당성 없는 박물관을 무분별하게 건립하고 사후에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심각하다. 상당수의 공립박물관은 건립에만 치중할 뿐이며,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박물관은 건립 후에 운영비 미미로 개관 지연과 개관 후에도 관람객 저조로 이어지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실 박물관 난립과 박물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지경이다. 위원회는 부실 박물관 난립과 박물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전평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소관 부서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공립박물관은 유물 취득과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장유물에 대한 자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유물에 대한 심의와 검증 절차 없이 소장 경위와 출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와 보상조건을 결정해서 기증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과 정기적인 소장품 현황 파악과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박물관이 다수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자가 실제로 소장품 현황을 알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천시 박물관 역시 여느 공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운영 상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 박물관은 시설과 인력 운영에서 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박물관은 종합운동장 관중석 하부 공간 또는 부속공간에 위치하여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전시와 교육 시설로 열악하다. 기획전시장이 따로 없어서 몇몇 박물관은 상설전시장 또는 외부 시설을 치우고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물관은 개관 10년이 넘은 지금 전시실 등 시설의 노후로 제습, 통풍 시설이 불량하고, 수장고 시설이 미비하여 소장품 보존에 어려움이 많다. 조명은 전기량과 열 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점차로 교체하지만 예산 관계 상 한계가 있고 자칫 화재발생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박물관들은 박물관 활성화 방안 작성 및 제출도 좋지만 관람객을 위한 환경 조성, 즉 노후시설 교체와 함께 각종 공간(교육실, 영상실 등)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박물관이 분산배치한 관계로 운영

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박물관 별로 학예사와 행정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서 1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무기기 등을 별도로 구비해 놓아야 한다. 박물관마다 인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운영난은 의회 등에서 박물관 인력 감축 지적으로 2011년 인력 4명을 감축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수탁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은 경영본부장 1명이 4개의 박물관을 관리함으로써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관리자로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부천시 박물관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시설, 인력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부천시 박물관은 부천시로부터 예산 동결 또는 감액을 매년 요구받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도 예산 중 인건비는 61.7%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너무 높다. 이는 부천시 박물관이 6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사업비는 매년 줄어듦 수밖에 없다. 적은 사업 예산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박물관은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기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박물관은 전문테마박물관으로서 해당 소장품 주제를 반영한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정하여 심화와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비예산 사업과 외부지원사업 응모, 부천시 관내 축제와 공동행사 참여 등으로 박물관은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등 단체 예약제나 가족 등의 참여자 편중 관람객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위의 우려 섞인 비판을 점차로 해소하고 있다. 외부지원사업은 공립박물관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원사업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공립박물관은 관심을 갖고 진행할 만하다. 심도있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박물관 학예사들은 양질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부천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 4. 부천시 박물관으로의 통합 후 운영 계획

부천시 문화정책의 기본 틀은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이다. 부천시 박물관은 기본틀 위에서 시민지향형 박물관으로서 문화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핵심가치로 전문테마의 융합과 책임경영, 문화나눔과 보은에 두고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전문테마의 융

합은 통합과 특화로 대표되며, 인문학과 과학(STEAM), 오락과 교육(Edutainment) 융합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 책임경영은 박물관 책임경영제 도입과 학술활동 강화로 건전한 문화생산과 소비, 시민참여형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문화나눔과 보은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 테마박물관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천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와 박물관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문화특별시 부천 이미지 향상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박물관 고유기능 강화로 '열린학습장'으로서 공공성 확보

부천시 박물관은 6개의 독특한 주제로 구성된 박물관으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박물관 별 소장품을 연계한 특별전 개최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부천시 박물관이 갖는 장점이다. 특히, 박물관 간 융복합 사업 개발과 시행은 많은 여지가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전문테마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열린 학습장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교육박물관은 자유학기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청소년 진로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부천시역 근현대 교육자료 지속적인 수집 전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간다. 유럽자기박물관은 자기와 글라스 등을 통한 유럽문화와 예술, 역사와 생활을 살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 수석박물관은 자연환경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수석문화를 홍보한다. 옹기 박물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활박물관은 과학과 전통문화를 융복합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활 문화에 관심을 이끌고자 한다. 펄벅기념관은 다문화와 문학을 통한 펄벅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한다.

최종적으로 시민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거나 신장시키는 것이 부천시 박물관의 목적이다. 세대와 계층별, 지역과 전문테마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 현장과 수요자 중심 교육인 '찾아가는 박물관' 확대를 위한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노력은 참여자의 참여율 및 재수강 증대 등으로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으로 이끈다. 시민과 관람객 등을 통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하여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천시박물관은 부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시설과 기자재 보완도 박물관 발전에 한 몫을 한다. 그중 하나는 박물관이 향온향습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박물관은 부천 지역

내 시민들의 생활사 자료들을 수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수 있다. 신규 수증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전량 입력하여 기존 소장품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 박물관은 입력과 관리에 머물지 않고 소장품을 문화콘텐츠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나. 부천시 박물관으로의 통합 작업 지속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내에 있는 부천시 박물관 4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며, 분산 배치로 인력 및 사무기기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는 박물관 증축 이전이 부천옹기박물관에 인근에 증축하여 3개 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박물관)을 이전하여 전문테마박물관에서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이 최선책이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천시 박물관으로의 증축과 통합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운영은 박물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경영도모, 수장 환경 개선으로 소장품의 과학적 관리와 부천시 문화자산 축적, 쾌적한 관람환경과 교육공간 조성으로 문화특별시로서 문화적 위상 향상, 전문테마의 융복합 사업 전개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의 부천시 박물관 상황에서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력난과 재정적 어려움이 겹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철저한 통합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통합을 이루고 증통합에 이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단계적 통합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을 상호교환하는 일시적 파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현재 수석과 유럽자기박물관이 평상시에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한시계약직을 주말과 휴일에 혼자 근무하지 않도록 하면서, 직원 한 명을 더 근무하게 하거나 블록식으로 근무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부천시박물관은 본관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본관은 현 부천옹기박물관과 증축한 박물관이고 분관은 활박물관과 펄벅기념관을 운영한다. 부천시향토사료관을 흡수하여 부천문화역사관을 신설하고, 전문테마실(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 기증자실, 특별기획전실, 교육실 등을 고루 갖춘다. 부천시립박물관은 전시관 구성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표2. 향후 부천시립박물관 전시관 구성과 내용

구분	명칭	내 용
제1전시관	부천문화 역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천지역 역사문화와 생활자료 전시</li> <li>○부천지역 역사문화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유적: 고리울선사유적 등</li> <li>•부천 인물과 집성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주이씨: 이숙, 이정공, 이위</li> <li>◦밀양 변씨: 변종인,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 신도비 등</li> <li>◦청주 한씨: 한언, 한준, 신도비 등</li> <li>◦여흥 민씨, 원주 원씨, 의령 남씨 등</li> </ul> </li> </ul> </li> <li>○부천지역 민속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앙: 장말도당굿, 산신제(웃소사대동산신제, 벌응절리산신제, 춘덕산신제), 아기장사바위 등</li> <li>•의례: 시제와 묘역(밀양변씨, 청주한씨, 죽산박씨, 전주이씨, 이한규묘 등)</li> <li>•놀이: 석천 농기고두마리</li> <li>•문서: 교지-김학현 외 69점, 칙명-민병숙 1점 준호구 24점, 호적단자 7점</li> <li>•문집: 서사록, 영세보장, 삼춘당집, 공와유고</li> <li>•자료: 호패 8점, 문화류씨 출토 명기 17점</li> <li>•고택: 여흥 민씨 3채(작동)</li> </ul> </li> <li>-부천지역 용기와 근현대사 관련 자료 전시</li> <li>-부천문화지도 제작</li> <li>○향토지명(내, 산 등)과 역사문화자료, 민속자료 표기, 설명</li> <li>-부천시민의 삶-사진 수집</li> <li>○의례, 생업, 오락, 교육 등 관련 사진 자료 수집하여 전시</li> <li>○영상 매체 활용 전시: 사진과 모니터 등</li> </ul>
제2전시관	전문 테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서당교육,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7차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생용품 자료전시; 교과서와 교복, 학용품 등</li> <li>-유럽자기: 18세기부터 근현대까지 독일의 마이센, 프랑스의 세브르, 영국의 로얄 웨이리 등 명품 자기와 글라스, 앤틱가구 등 유럽문화를 살필 수 있도록 전시</li> <li>-수석: 오랜 풍파 속에 자연과 조화를 이룬 수석 전시를 통해서</li> </ul>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림: 산수경석과 물형석 등 -옹기: 병인박해(1866)때부터 천주교도들이 옹기를 굽던 점말과 옹기 등 전시
제3전시관	기증 전시실	-부천시역 근현대 교육 자료 포함 생활 관련 자료 -토기와 옹기 자료 전시
특별전시관	특별 전시실	-개관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명품 등을 특별전 개최 -교육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등

#### 다. 책임경영제로 비영리 수익형 박물관으로 정착

박물관 운영 체계는 부천문화재단 위탁 관리에서 부천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미 부천시는 위탁 운영하던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시는 부천무역개발이 수탁 운영하던 자연생태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임 관장 제 도입 등으로 박물관 책임경영기관 지정과 평가를 시행한다. 유능한 전문 박물관 인사를 전임 관장으로 영입하여 책임경영 시도와 공정한 평가로 박물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미 부천시 담당자는 '박물관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박물관을 경영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sup>8)</sup>.

부천시는 관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한다. 행정과 관리조직 중심에서 벗어난 학예사업 중심의 신개념 박물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의 자체 수입 증대, 신규 수입 사업 개발과 운영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부천시 박물관은 사업의 내실화·전문화 추진과 특화사업 발굴시행으로 박물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비영리 수익형 박물관으로 정착시킨다. 교육 프로그램의 자체 수입 확대 등으로 증대된 박물관 수익은 문화나눔사업으로 문화취약 계층과, 문화보은사업으로 부천시역 사회발전공헌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개발과 운영으로 수익을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위해 환원한다.

책임경영제는 마케팅을 연계한 홍보가 뒤따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천시박물관 홍보목적은 다양한 프로그램(전시, 교육,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

8) 시 관계자는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익성과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인의 시설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박물관을 경영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부천신문 9년 1월 보도) 그러나 부천시는 박물관 경영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생태박물관을 관장 없이 운영하고 있다.

게 제공하는 시민홍보, 정책홍보 등으로 박물관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관람객 증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박물관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홍보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두어야 한다.

## 라.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고양과 역량 강화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는 ‘박물관의 꽃’, ‘고급인력’이라는 피상적인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내에서 전문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보수가 적다 하더라도 박물관과 관장은 이들을 심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서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관장과 이들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박물관의 고유기능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은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산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와 문화적 가치를 증대하여 시민지향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박물관이 가진 전문테마를 융복합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全) 연령층/계층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연1회 이상 학술지 논문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학술연구 능력신장과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각종 학술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부천시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 마. 지역연계 사업으로 시민지향형 박물관 토대 구축

박물관은 문화복합공간으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박물관은 지역 내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은 후에 각종 사업을 함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박물관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박물관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물질적인 욕구충족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풍족하고 행복하도록 중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박물관은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같은 교육 행정기관, 초중고교, 대학의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교 내 학부모회 등도 박물관에게 좋은 협력 관계의 형성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교수는 박물관의 협력 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박물관은 지역의 향토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물관이 접촉하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업 대상은 기업이지만, 서로 자신의 고유한 성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할 수 있다. 박물관은 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박물관과 기업은 상호 필요와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마케팅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민간 및 기업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즉 외부 역량을 유입할 필요성을 제기 받고 있다.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박물관은 멀리할 필요가 없다. 박물관과 향토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의 시너지 효과는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단순한 후원보다 배가 될 것이다. 박물관은 재정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향토기업이 충족하지 않지만 접근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거나 의견 조율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 더할 나위없는 협력관계로 효과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역 주민들은 박물관과 향토기업 간의 문화활동을 환영한다. 향토기업은 대기업보다 역량이 작을지라도 지역발전을 더 바란다. 박물관과 향토기업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지역 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물관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박물관은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특별전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나름의 고유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어 연구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 하에서 박물관은 연구소와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비는 자부담으로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박물관과 연구소가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박물관은 학습프로그램 교보재와 그와 관련한 것들의 개발을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연구소와 함께 연구와 개발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바. 사회공헌활동 지속으로 소통의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

일련의 박물관 활동들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와 학습활동들이다. 그래도 특정한 시기에 목적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바자회 등 비영리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역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박물관은 행사 수익금 및 물품 등을 부천시 지역 민간단체에 기부하여 부천시 문화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박물관과 지역의 예술인들과 예술인 단체와 협력관계가 가능하다. 기부는 반드시 물질로 가능하지 않고 재능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력을 박물관에 보태주거나, 박물관이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상호 작용이다.

그리고 박물관은 부천시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과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과 함께 부천지역 문화취약계층, 사회발전공헌자와 그의 가족들과 연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부천지역 사회발전공헌자는 소방공무원, 병원 근무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박물관의 다변화와 다목적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 사.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박물관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이다.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sup>9)</sup>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와 예술계 종사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sup>10)</sup> 박물관은 해당박물관 성격과 특징에 적합한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자연스럽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물관은 그들로부터 박물관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운영 상 도움을 받기도 한다. 박물관은 운영위원들을 활용해서 발전모색, 운영개선, 후원과 업무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각 박물관 별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를 부천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분기별 운영함으로 거의 상설화해서 토론 활성화와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박물관 별로 6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1회 개최로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부천시 박물관은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M 플러스)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위원과 다르게 박물관 간단한 운영과 행사에 항시 도움을 주고 있다. 게다가 박물관 자원봉사자는 향후에 해설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보조 등으로 활용해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존감과 사명감이 가장 우선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활발한 논의(월별, 분기별)를 통한 박물관 발전방향 모색과 토론 문화를 정착시킨다.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5. 과제를 남기며 ...

부천시는 '문화특별시 부천', '박물관이 많은 도시' 등 박물관 관련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여느 도시와 비교해서 그다지 역사문화적 자산이 부족한 부천시는 문화예술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다. 부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11개 박물관은 적은 수의 박물관이 아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박물관 건립 관련 정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필자는 문화예술을 산술적으로 효율성만을 측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부천시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박물관 과제로 남겨보고자 한다.

부천시는 현재 관내에 소재한 박물관만이라도 부천의 문화자산으로서 소중하게 관리해서 부천시민에게 진정한 문화향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을 시기적으로 약간 미루더라도 기존에 있는 박물관 자산을 잘 활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부천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덜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 문화정책에 따른 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참여자에 지나지 않고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독려했으면 한다. 부천시는 기존의 11개 박물관들을 유기적으로 엮어갈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박물관만이라도 확실히 지켜서 활용하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진정한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건설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천시 박물관에 유능한 전문인력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필자는 반 템포 쉬어가면서 지나간 부천시 박물관정책을 뒤돌아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찾고 뒤지다 보니, 부천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숨은 다수의 자료를 찾는 수확을 올렸다. 부천시 박물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자로 예단하곤 하는데, 그러한 언행을 하기에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불리 부천시 박물관과 관련해서 시비공과와 같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의 11개 박물관을 잘 활용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맺자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임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이 글을 맺고자 한다.